

compassion(공휼)은 라틴어 ‘com’(함께)과 ‘passio’(고난당하다)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즉 ‘함께 고난당한다’는 뜻입니다. 공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라쿰’도 동일합니다. 라쿰은 ‘자궁’(레켄)이란 단어에서 온 말로 어머니가 뱃속 아기와 함께하듯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공휼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고통을 겪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고통과 아픔에 무심하거나 무지하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개인과 공동체의 실존을 ‘배’로 표현합니다.

배가 풍랑을 만나듯 나와 우리 공동체의 삶과 사역에는 실존을 흔들 만한 사건들이 발생합니다(마 14:24). 난파의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 한복판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의 쉽 안으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마 11:28-30). ‘명에도 주와 함께, 쉽도 주와 함께하는 삶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이 자주 등장합니다.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시기에 앞서 먼저 나의 아픔에 공감해 주십니다. 내 아픔 그대로를 느끼시는 공휼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공휼을 가장 잘 보여 주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고난과 고통을 십자가에서 친히 감당하셨습니다. 이로써 모든 이에게 영원한 생명과 안식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공휼’히 여길 때, 즉 그들의 아픔을 진심으로 공감할 때, 우리는 참 생명과 참된 쉽을 전하게 됩니다. 잠시의 떡과 음료와 위로뿐 아니라 영원한 양식이요 영원한 생명이요 영원한 쉽의 근원인 예수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공감하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잇대어 나의 십자가를 지고 갑니다. 나와 함께 명예를 지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던 나의 십자가가 가벼워지고, 비로소 쉽을 누리게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공휼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 ① 예수님이 공감하며 함께 아파하심을 깨닫습니까?
- ② 예수님의 초대에 기쁨으로 응하고 있습니까?